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CATI & ARS

제53차 CATI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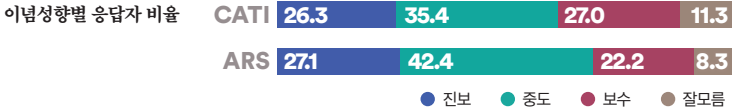
제68차 ARS조사

여론조사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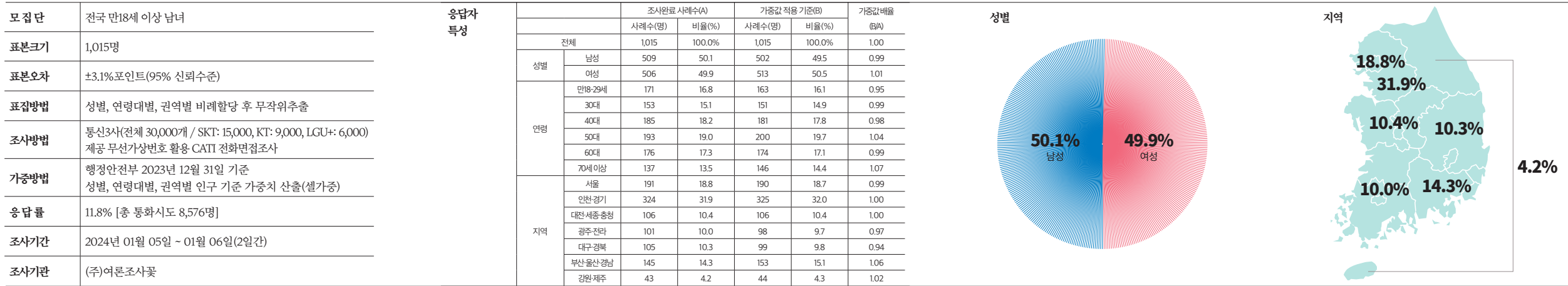
정례여론조사

보고서

CATI & ARS



CATI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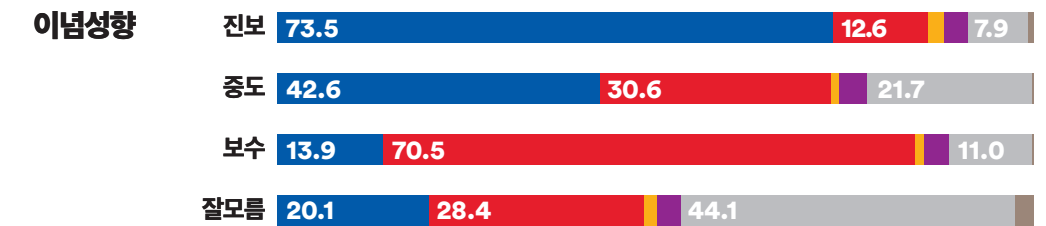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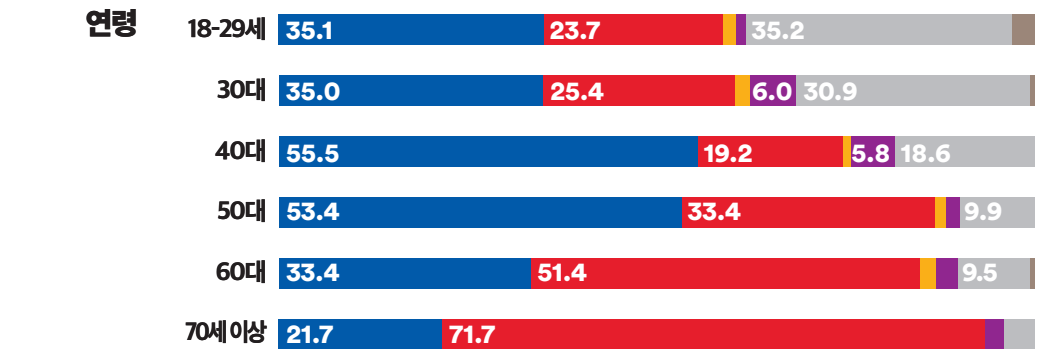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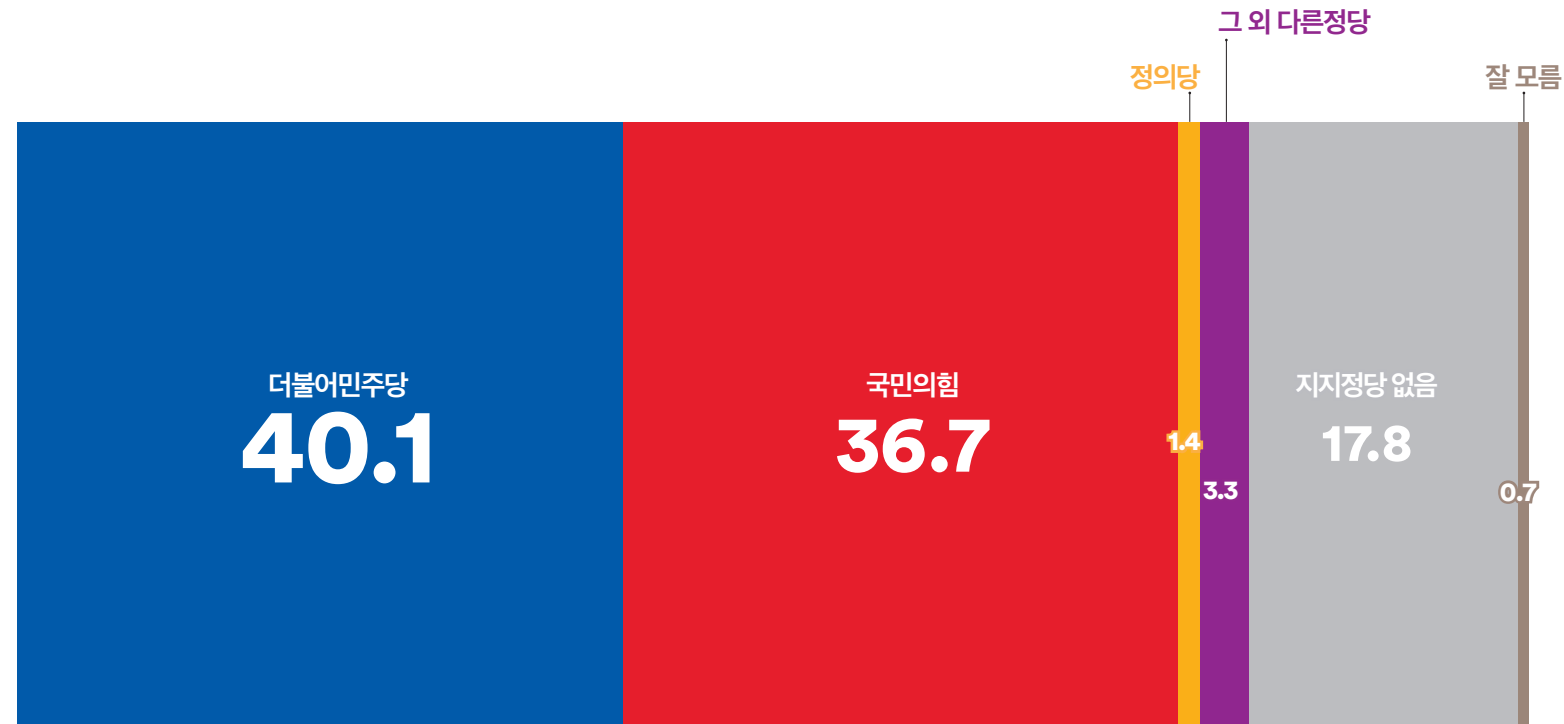


ARS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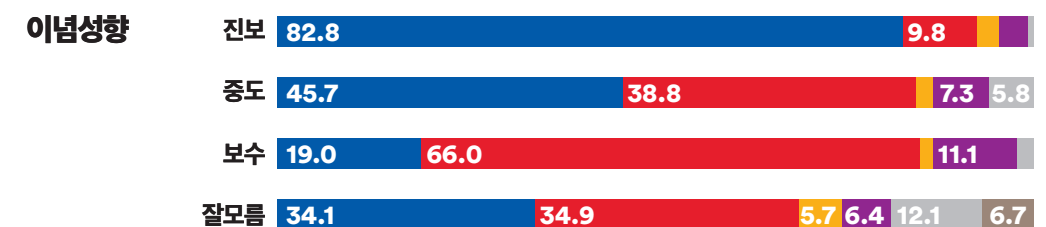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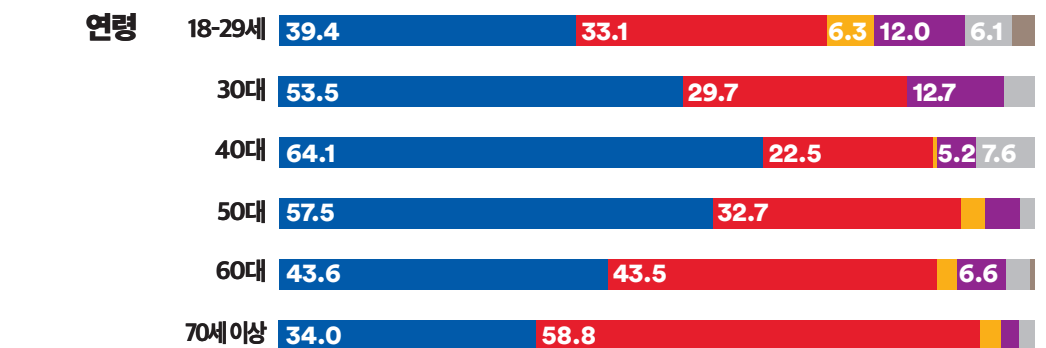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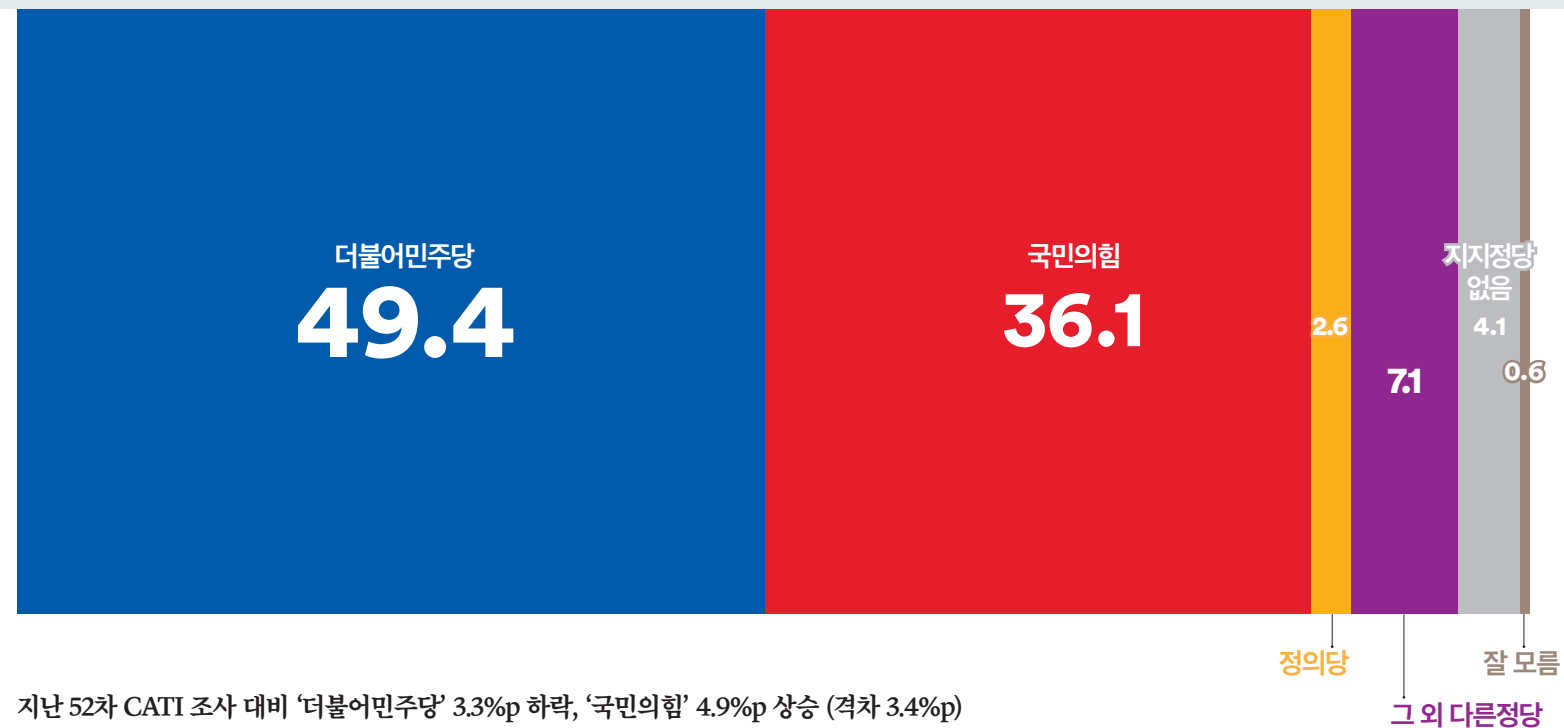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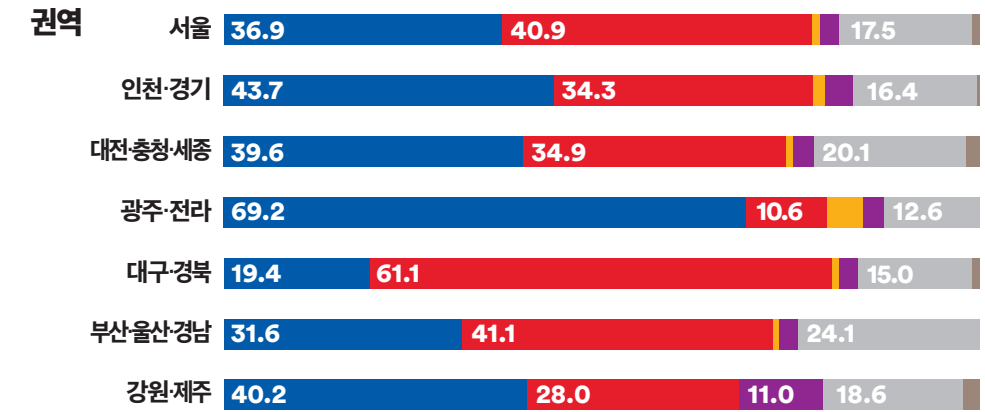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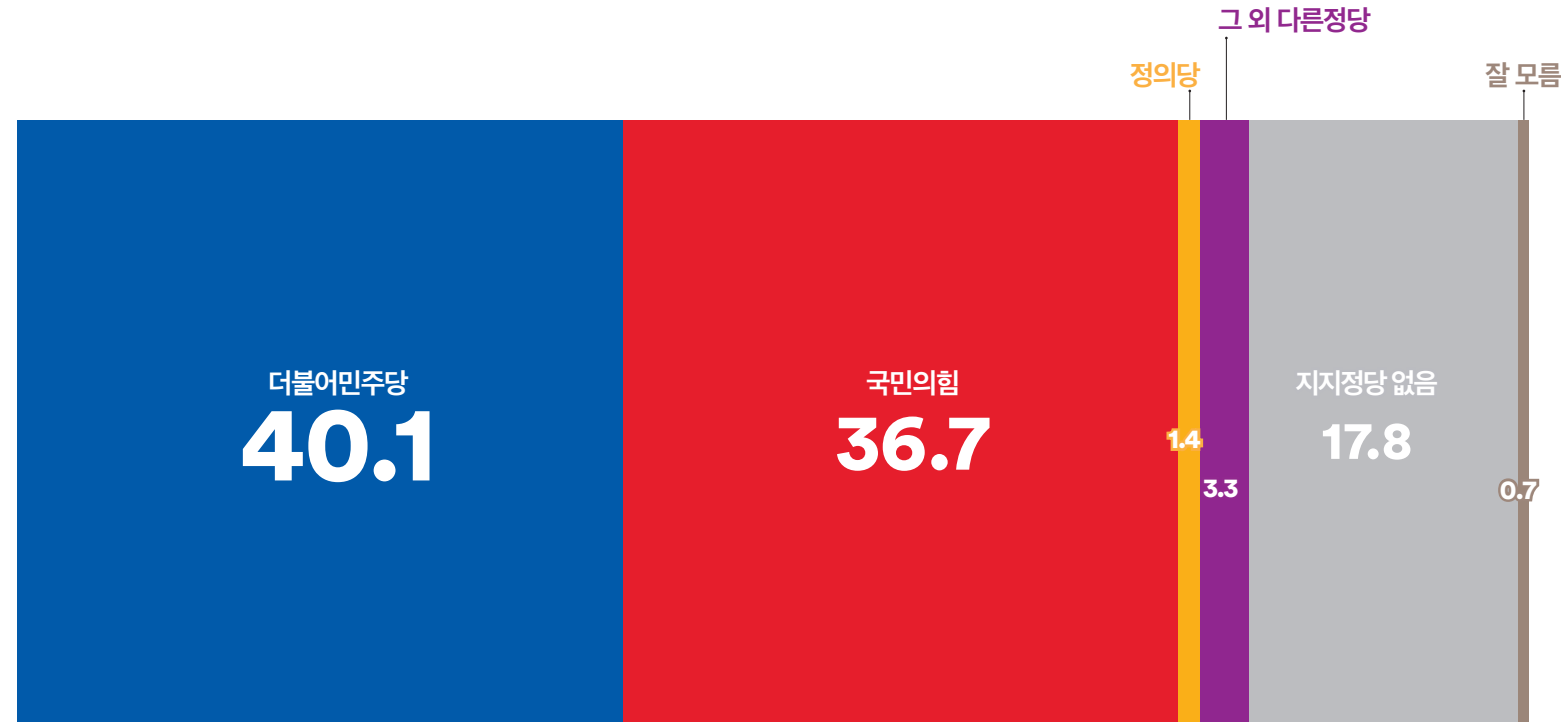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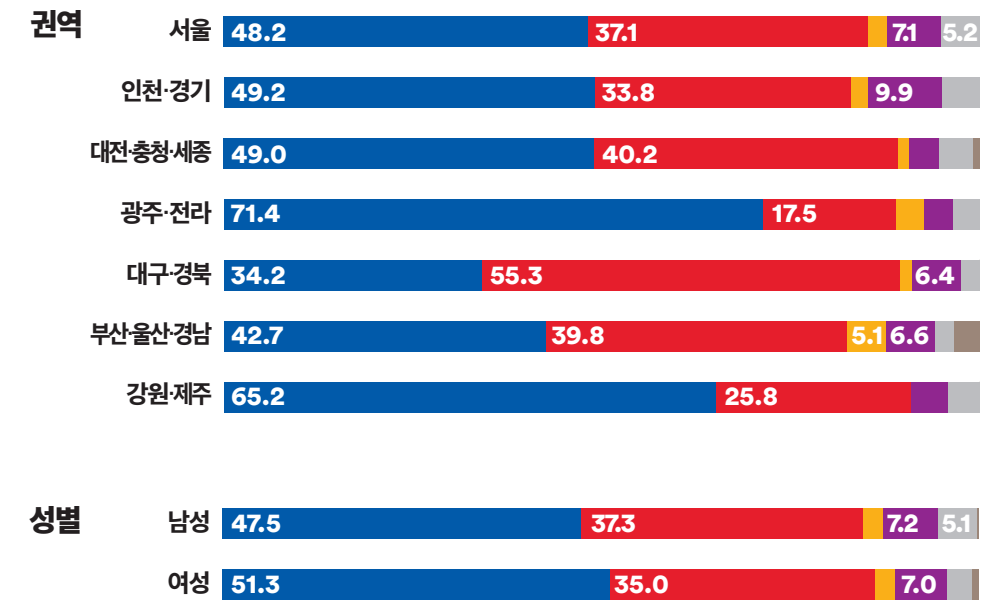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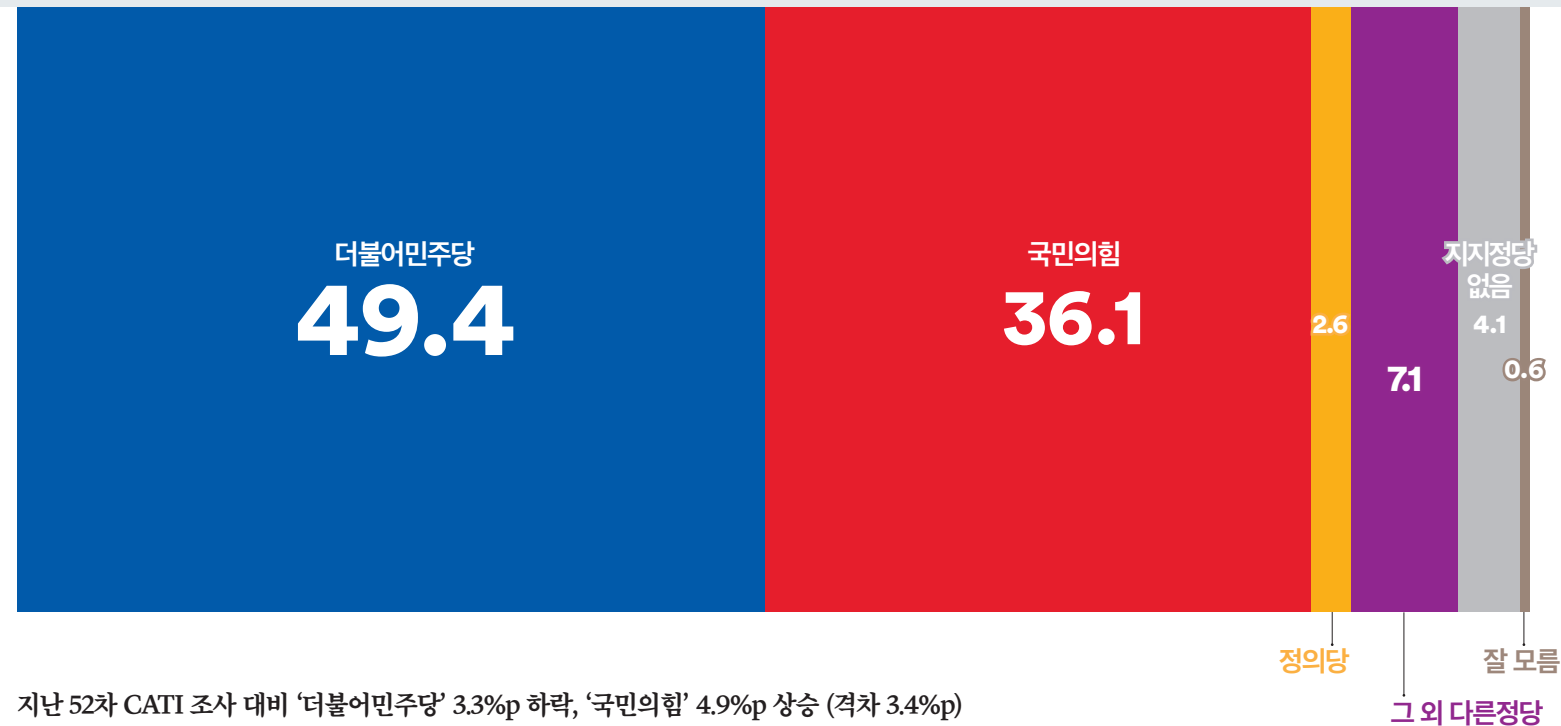
지난 52차 CATI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3.3%p 하락, '국민의힘' 4.9%p 상승 (격차 3.4%p)
 지난 67차 ARS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2.9%p 하락, '국민의힘' 0.2%p 하락 (격차 13.3%p)
 두 조사 모두 호남권(ARS 조사는 경인, 강원·제주 포함)에서는 '더불어민주당', TK권에서는 '국민의힘'이 우세
 40·50대(ARS 30대 포함), 진보층은 '더불어민주당' 우세, 70세 이상 (CATI 60대 포함) 응답층 및 보수층은 '국민의힘' 우세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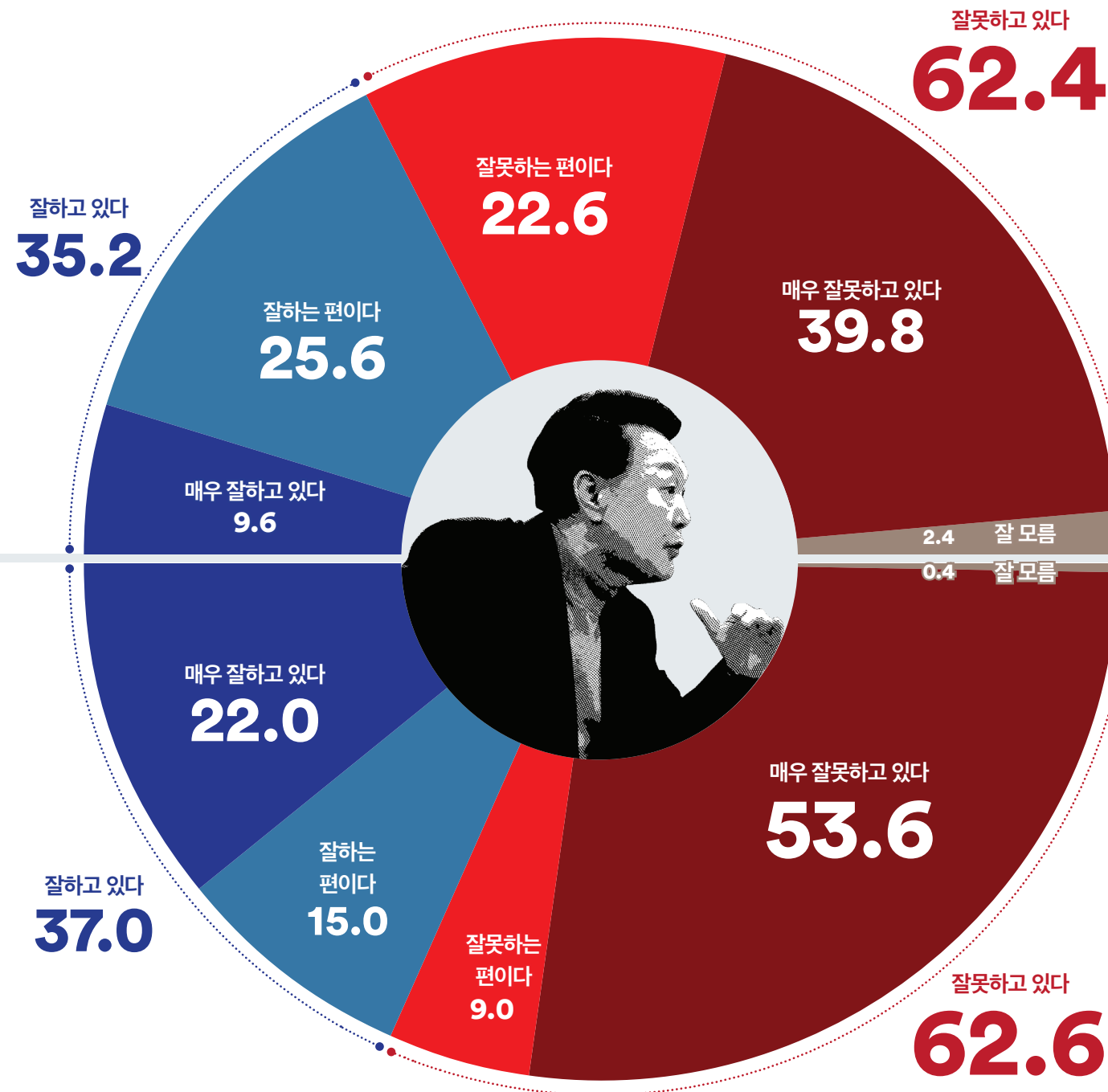
ARS



지난 52차 CATI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3.3%p 하락, '국민의힘' 4.9%p 상승 (격차 3.4%p)
 지난 67차 ARS 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2.9%p 하락, '국민의힘' 0.2%p 하락 (격차 13.3%p)
 두 조사 모두 호남권(ARS 조사는 경인, 강원·제주 포함)에서는 '더불어민주당', TK권에서는 '국민의힘'이 우세
 40·50대(ARS 30대 포함), 진보층은 '더불어민주당' 우세, 70세 이상 (CATI 60대 포함) 응답층 및 보수층은 '국민의힘'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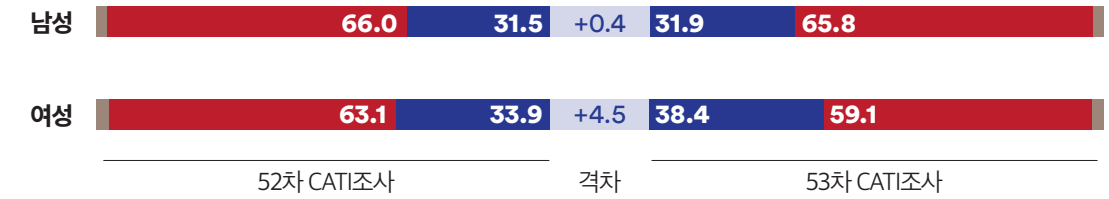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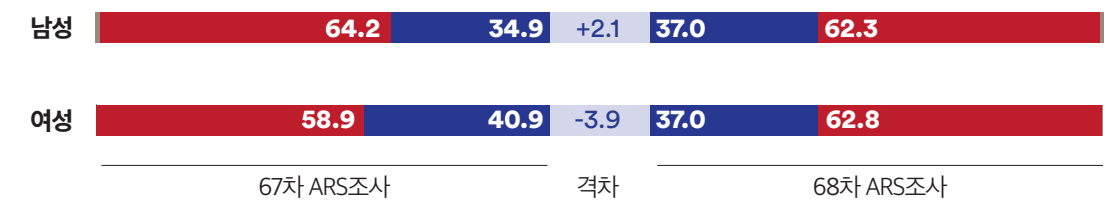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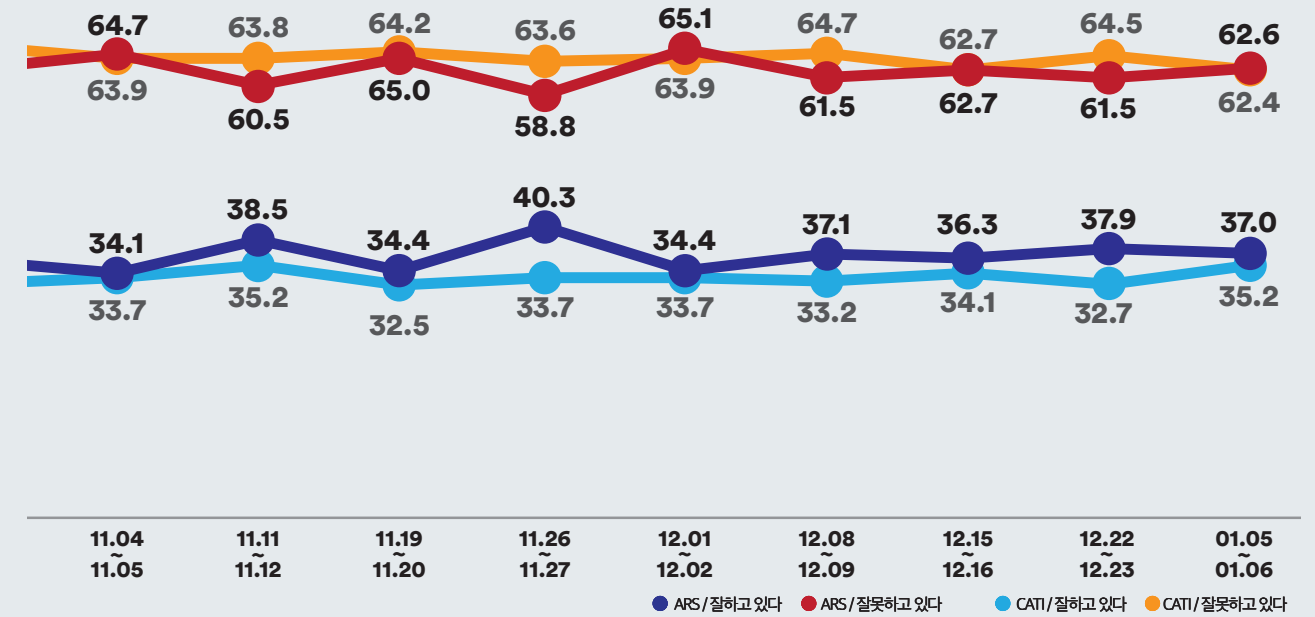


ARS

지난 51차 CATI 조사 대비 '긍정'평가 2.5%p 상승, '부정'평가 2.1%p 하락 (격차 27.2%p)
 지난 67차 ARS 조사 대비 '긍정'평가 0.9%p 하락, '부정'평가 1.1%p 상승 (격차 25.6%p)
 중도층의 긍·부정 평가 격차는 CATI 조사에서 48.5%p(전주: 46.6%p), ARS 조사에서 20.6%p(전주: 28.3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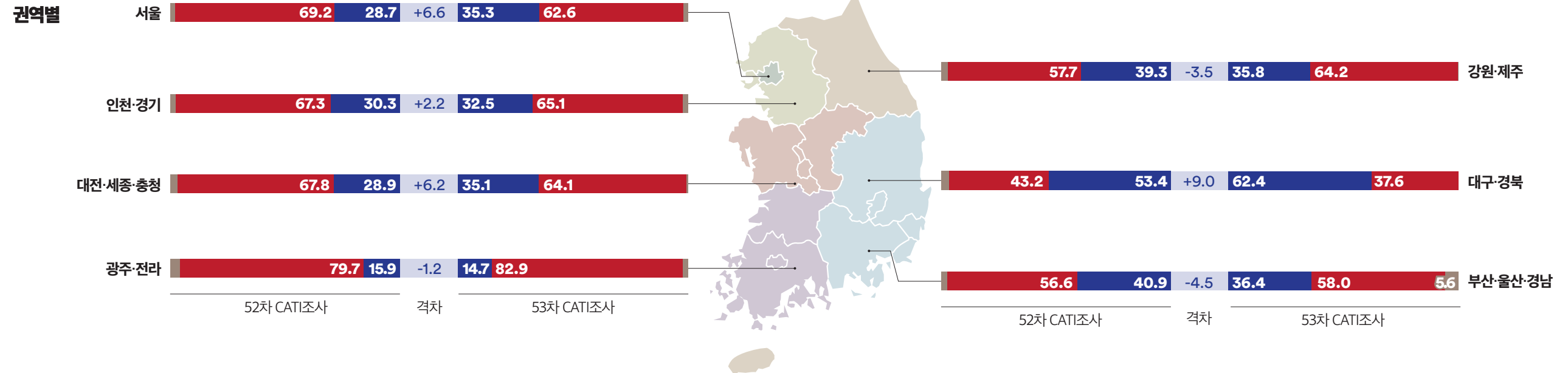
주차별 국정운영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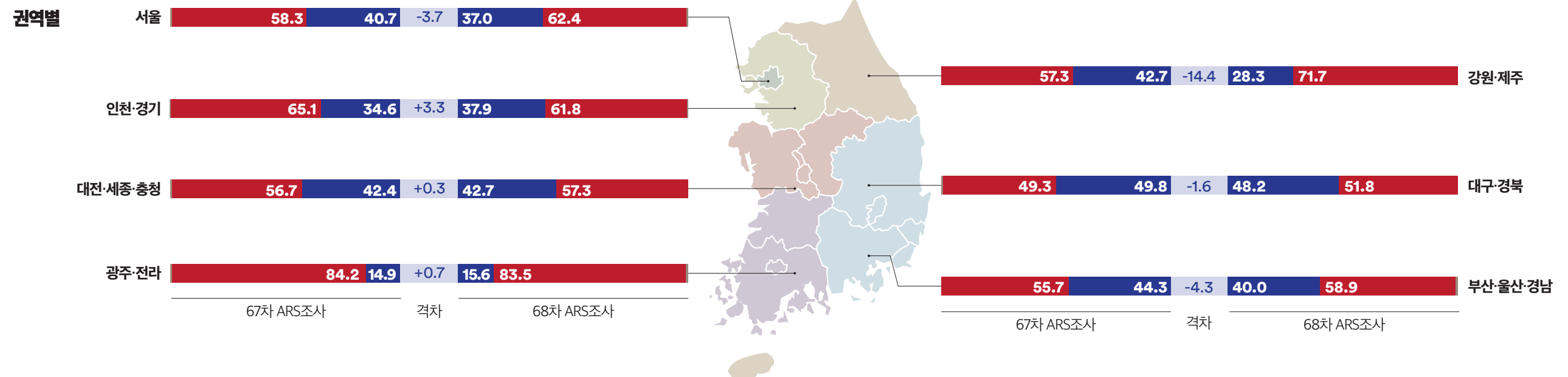
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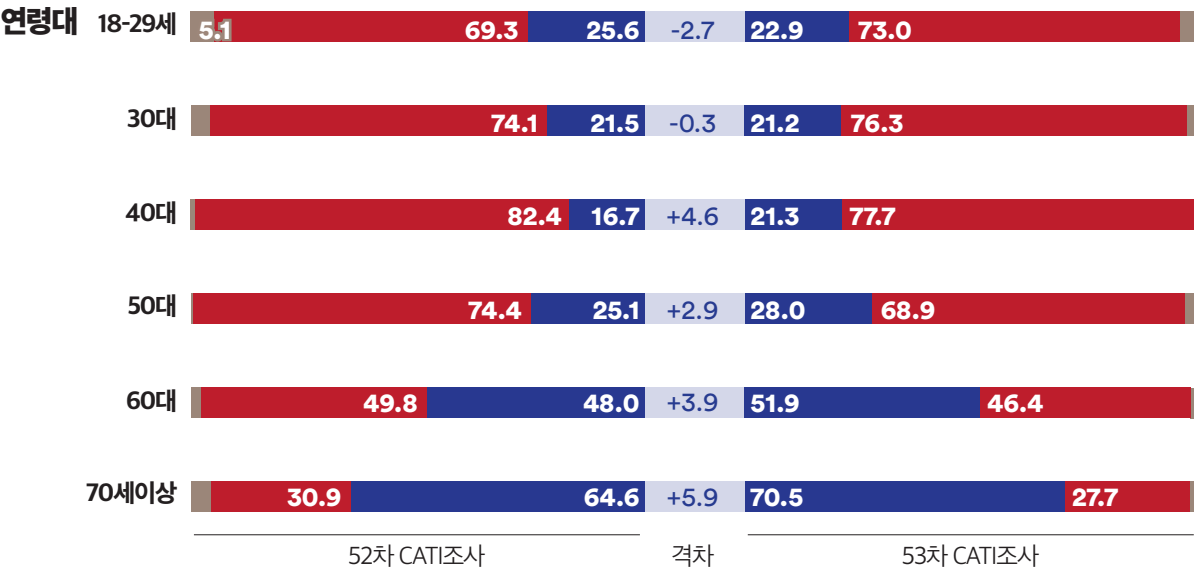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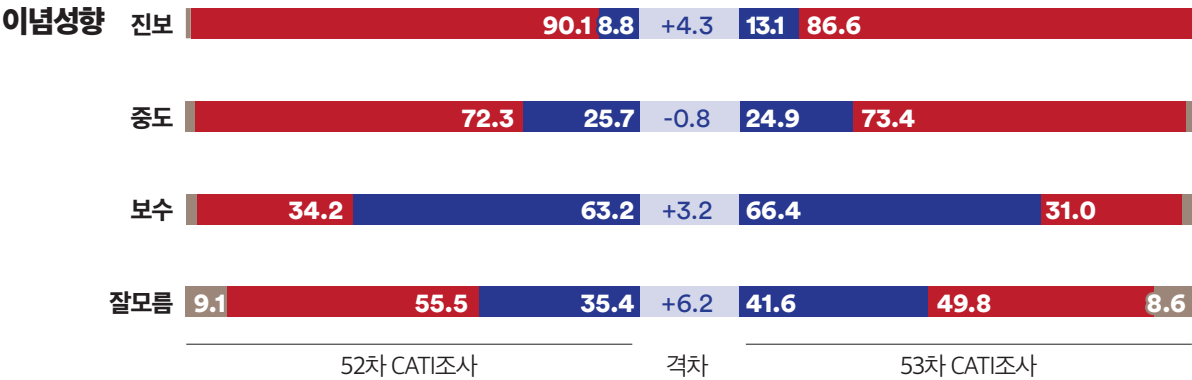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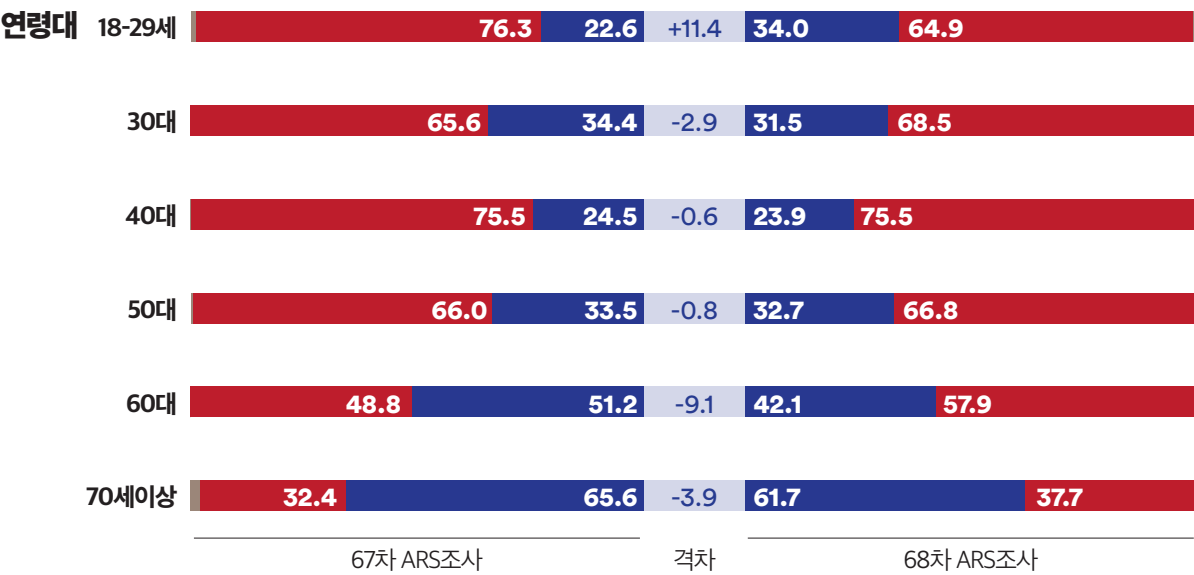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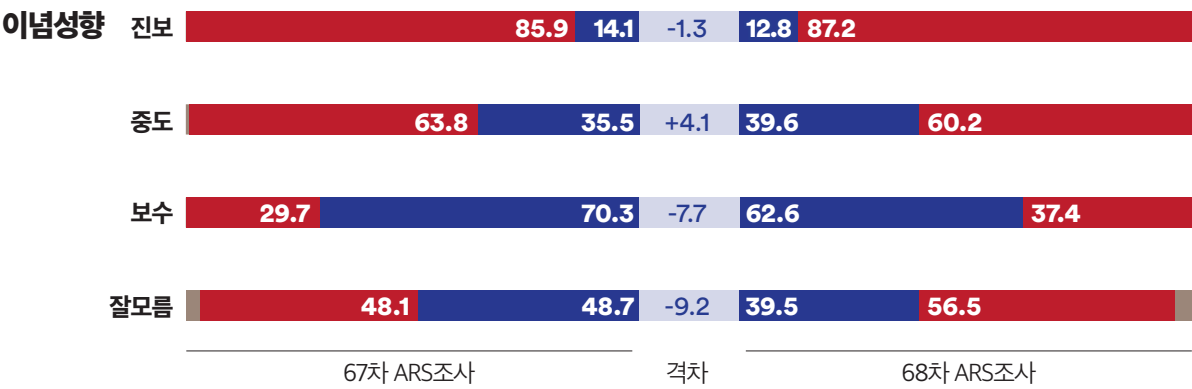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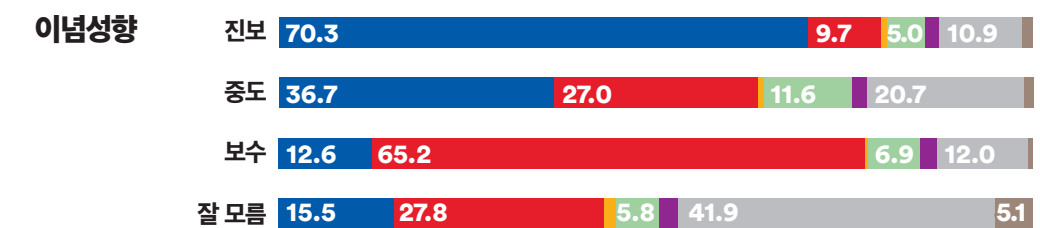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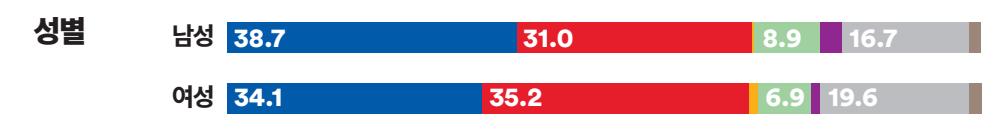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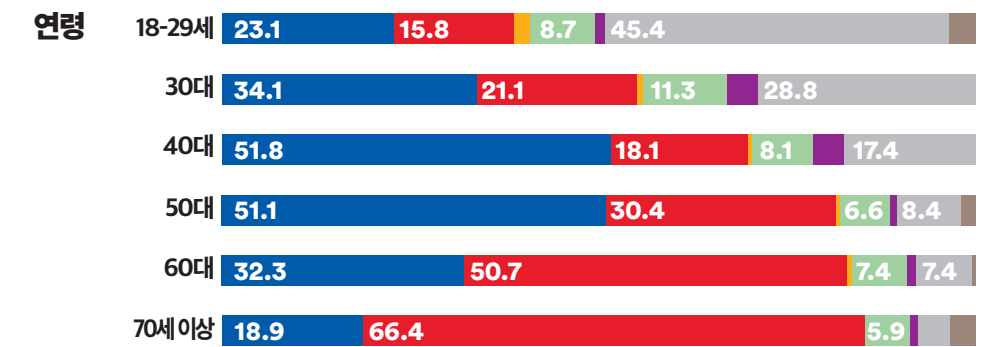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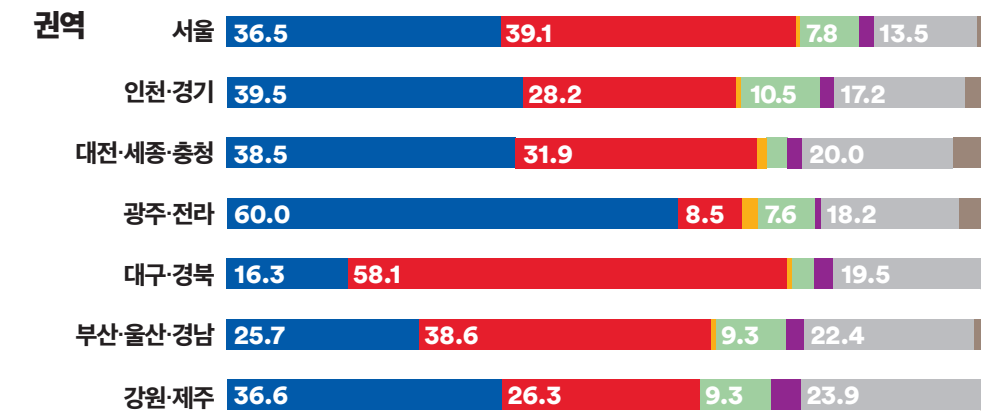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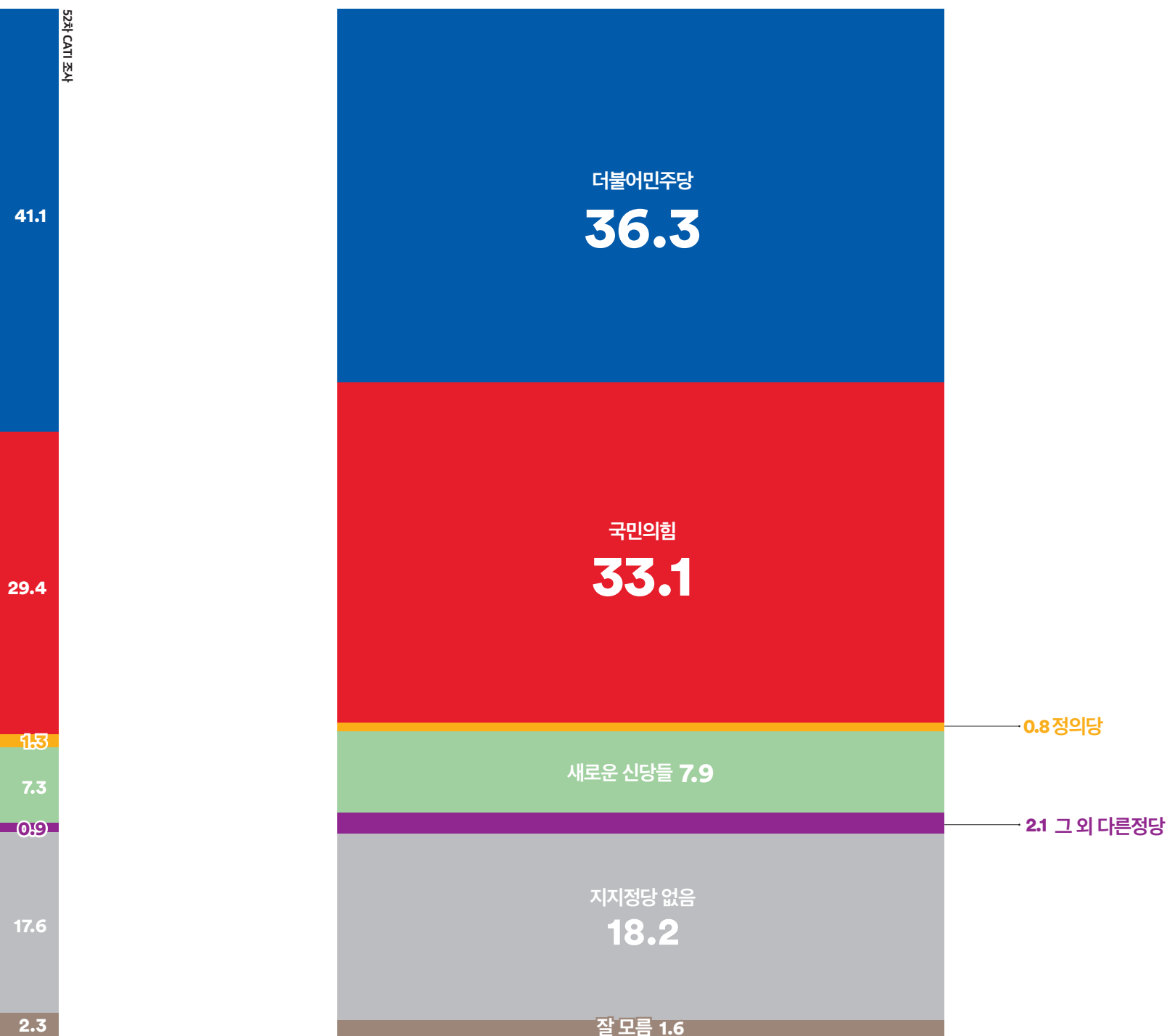


ARS


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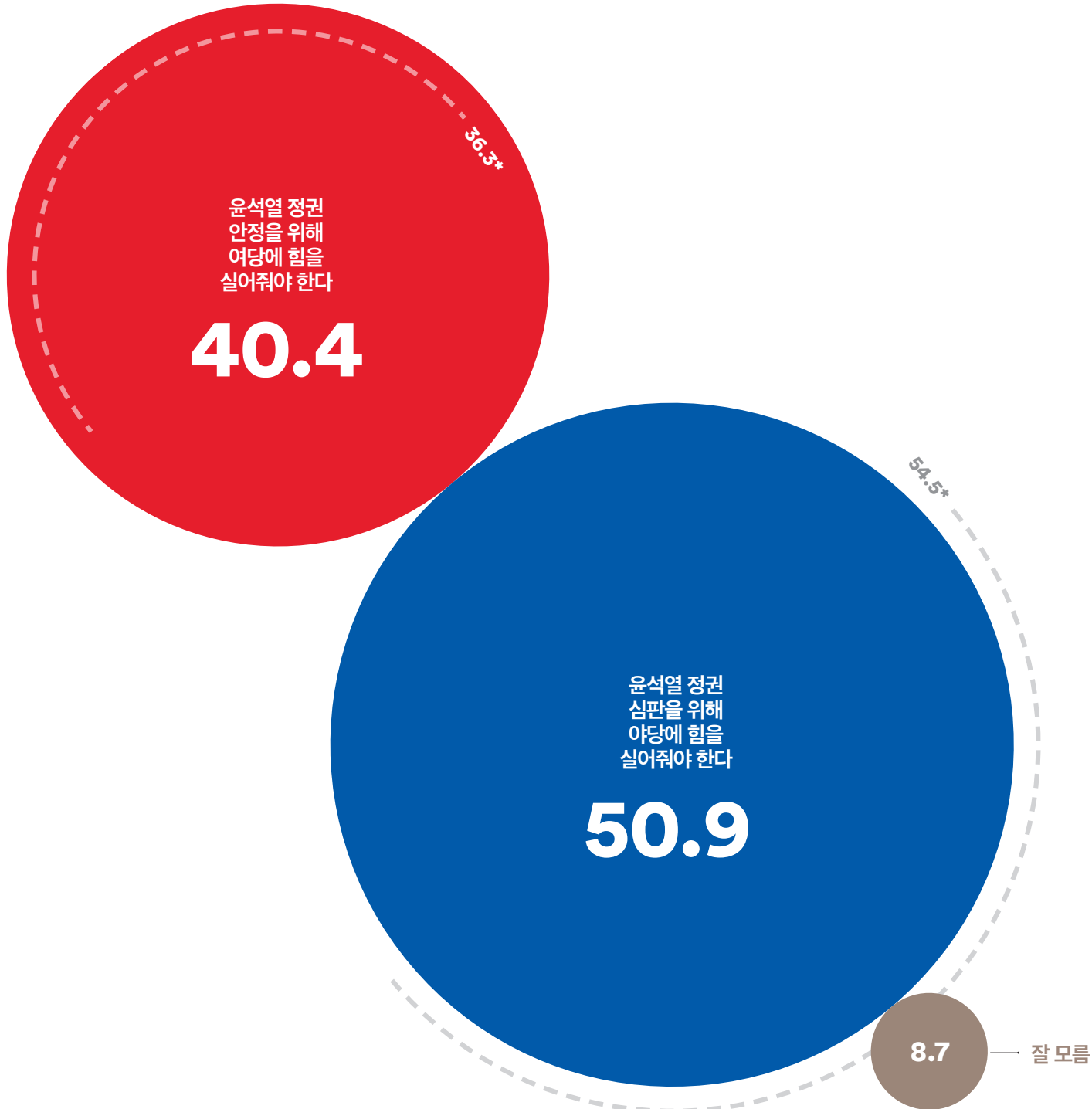
Q.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

‘더불어민주당 승리가 바람직하다’는 응답이 ‘국민의힘 승리가 바람직하다’는 응답 대비 소폭 앞섬(격차 3.2%p)
지난 52차 조사 대비 ‘더불어민주당’은 4.8%p 감소, ‘국민의힘’은 3.7%p 증가, 새로운 신당들은 홍보
경인, 호남권에서는 ‘더불어민주당’, TK는 ‘국민의힘’이 우세(PK는 앞섬)
남성, 중도층, 50대 이하는 ‘더불어민주당’, 60대 이상은 ‘국민의힘’이 앞서거나 우세 (중도층 격차 9.7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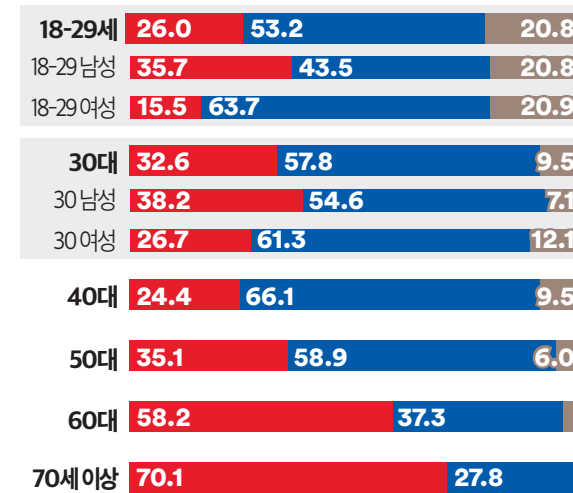
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새로운 신당들
그 외 다른정당 없음 잘 모름

Q. 차기 총선에 대해, 다음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? 보기는 순환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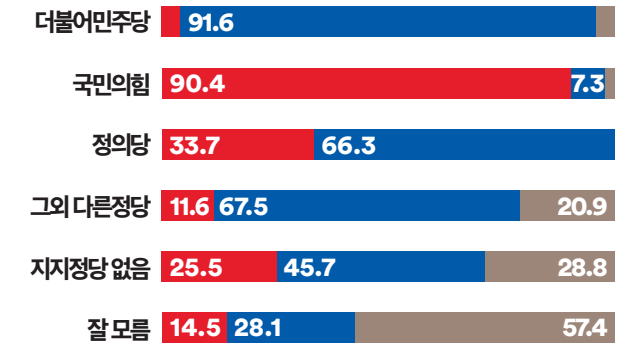


응답자 절반 이상이 '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'고 응답, 우세 (격차 10.5%p)
수도권, 충청, 호남 및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'정권 심판론', TK, PK 및 60대 이상 응답층은 '정권 안정론'이 앞서거나 우세
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도 '정권 심판론' 우세 (중도층 격차 19.8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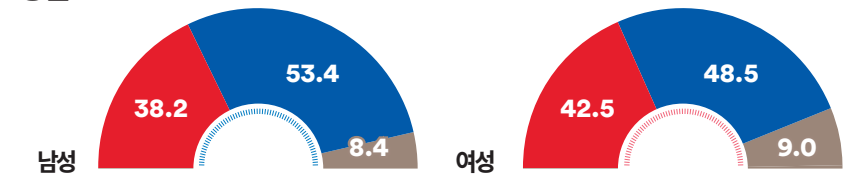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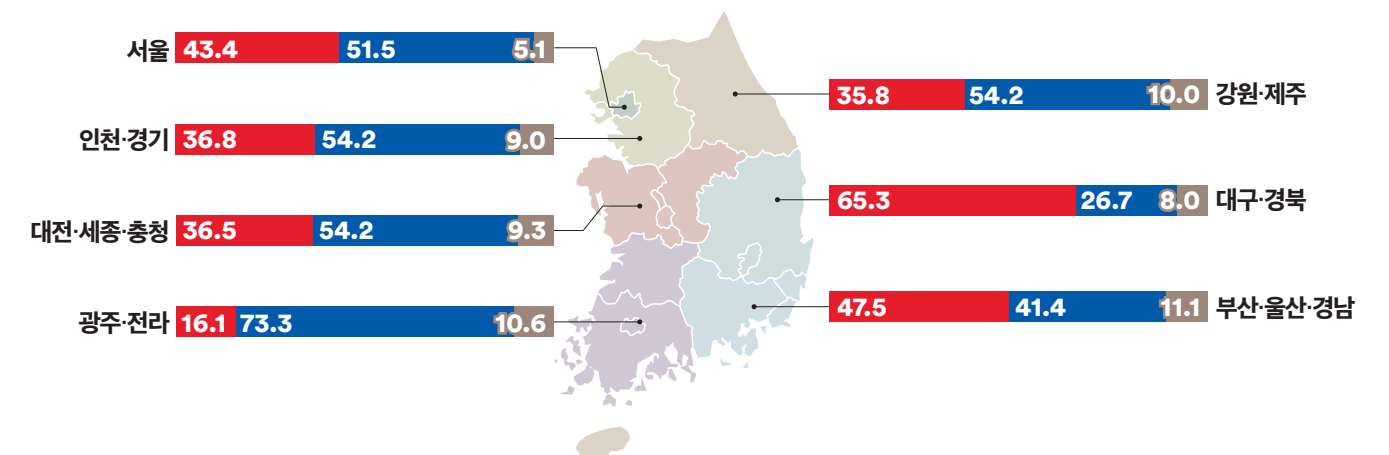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성별



권역



* 52차 CATI 조사 수치

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|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| 모르겠다

독도분쟁지역표기: 신원식장관 발언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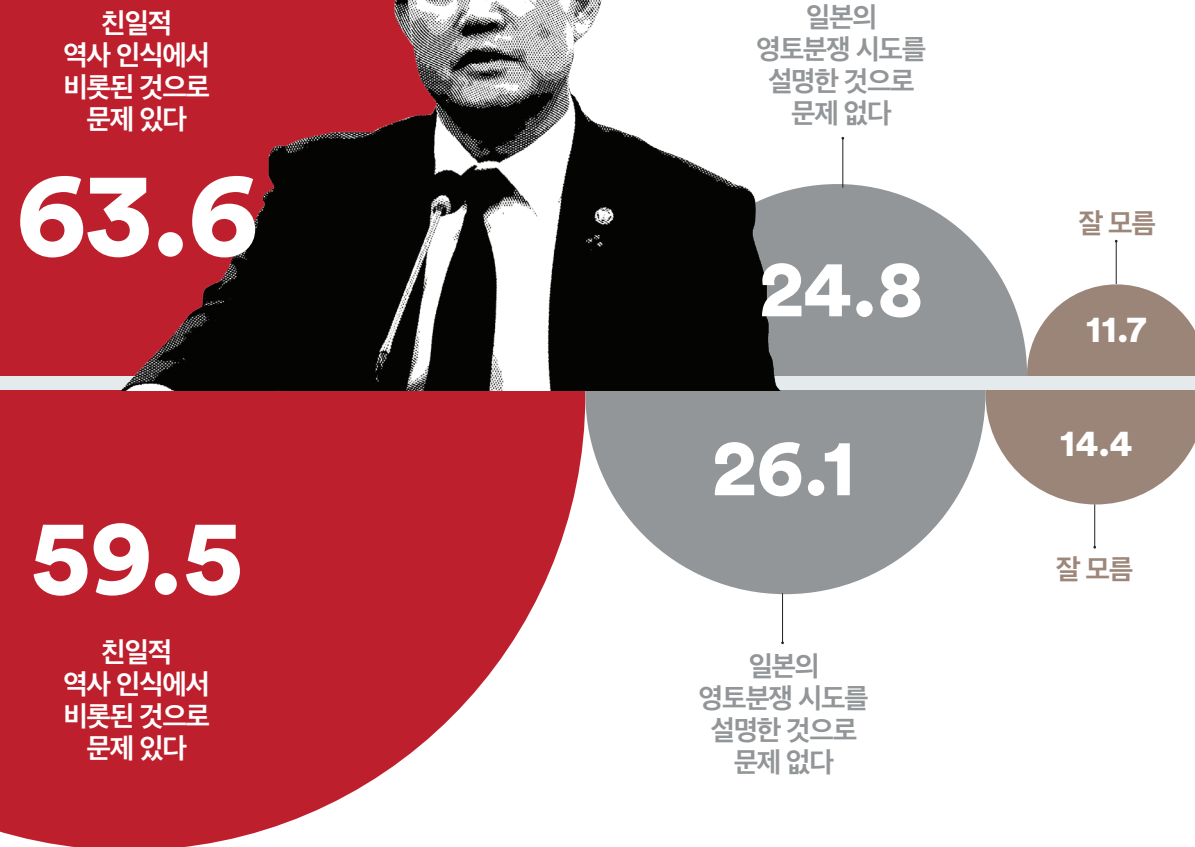
Q.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된 가운데, 감수 과정에 참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“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”라고 주장한 것이 확인됐습니다. 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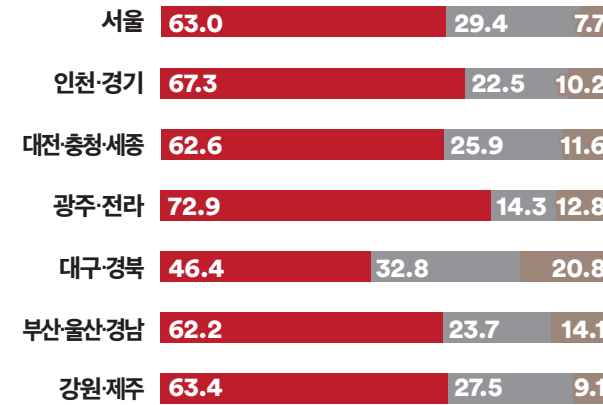
“지금 한일간에 과거사,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”
[2023.3.23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SNS 내용 중]

“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것은 일본이 아닌 북한.”
“지금 한일간에 과거사,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
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
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?”
[2023.3.23 신원식 의원의 국회 상임위 발언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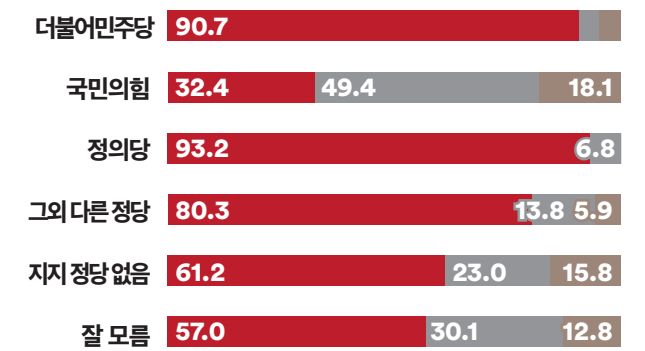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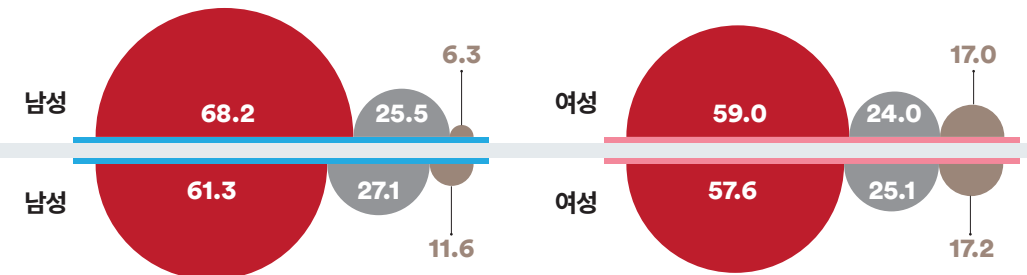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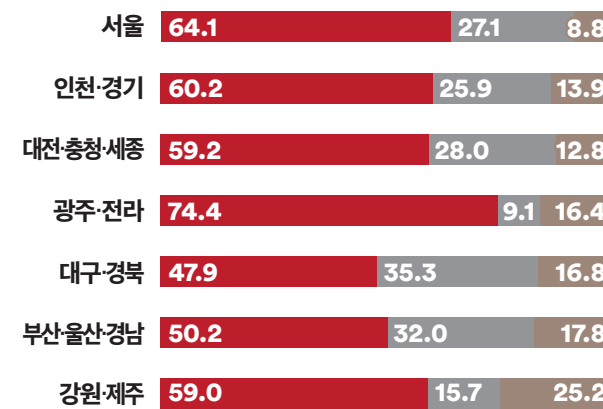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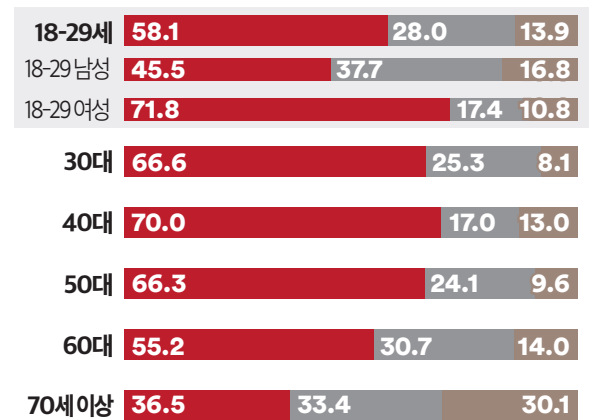
성별



권역



연령



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신원식 장관 발언에 ‘문제 있다’고 응답, 압도적 우세 (격차: CATI 38.8%p, ARS 33.4%p)
TK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역,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‘문제 있다’이란 응답이 우세

문제 있다 문제 없다 모르겠다

도이치특검: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현 평가

Q.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‘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’을 ‘김건희 특검’이 아닌 ‘도이치 특검’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CATI


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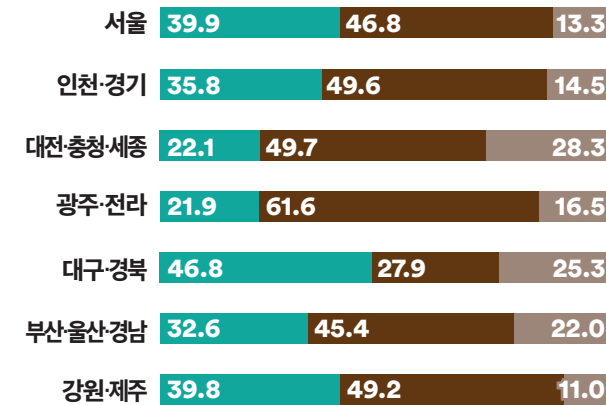
두 조사 모두 ‘대통령 내외가 불쾌해하므로’라는 응답이 우세

TK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모두 ‘대통령 내외가 불쾌해하므로’라는 응답이 앞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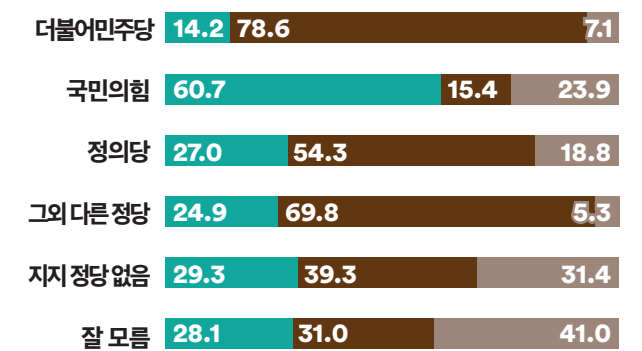
CATI 조사의 50대 이하 응답층과 ARS 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‘대통령 내외가 불쾌해하므로’라는 응답 앞섬

중도층의 경우, 두 조사 모두 ‘대통령 내외가 불쾌해하므로’라는 응답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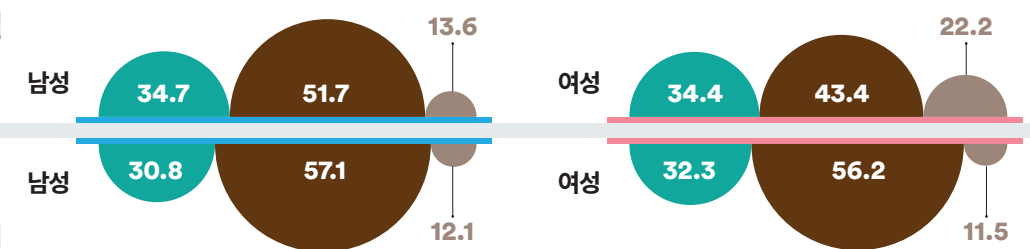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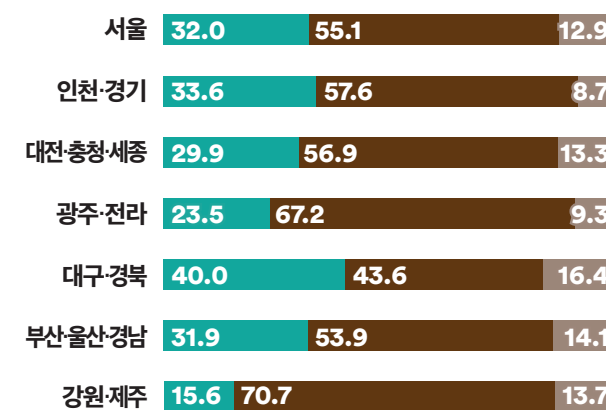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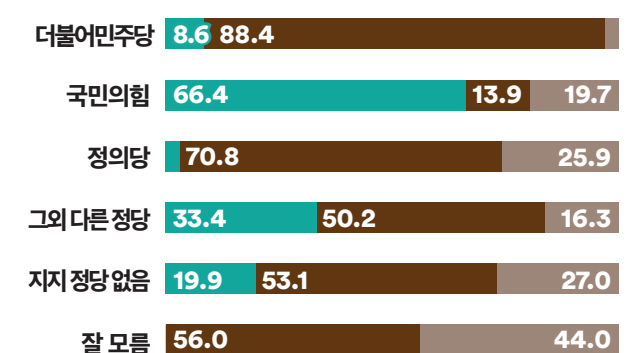
성별



권역



정당지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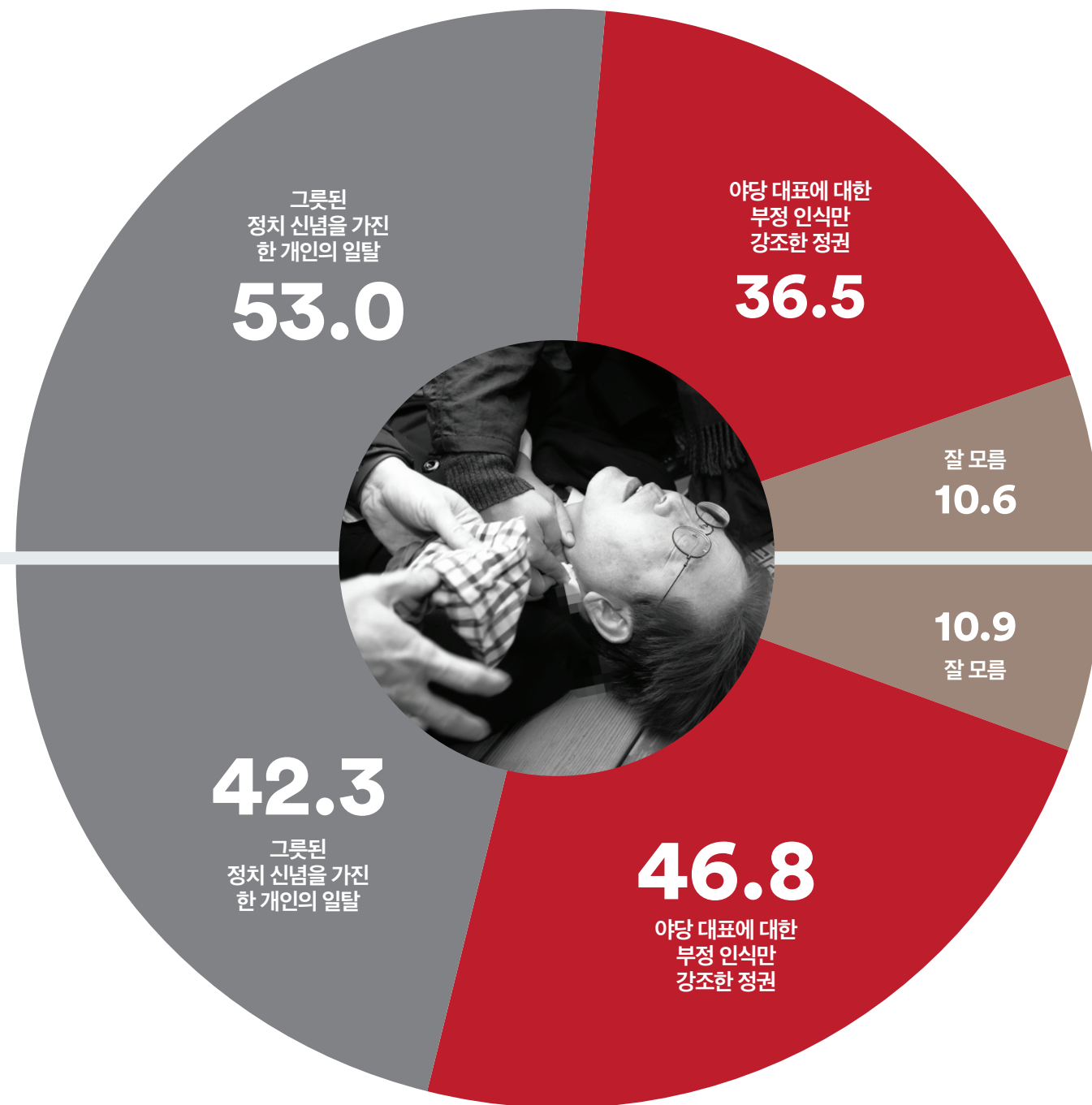


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불쾌해하므로 모르겠다

Q.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시도가 있었습니다.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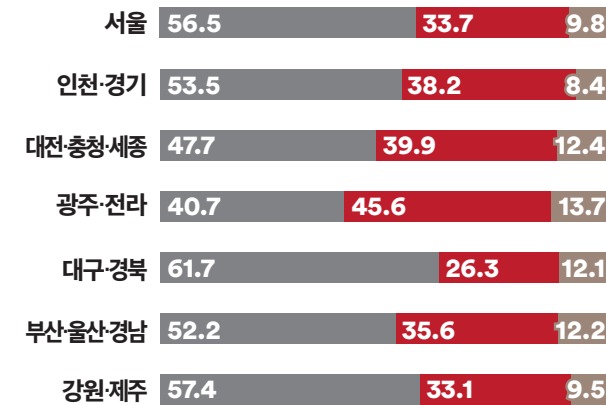
CATI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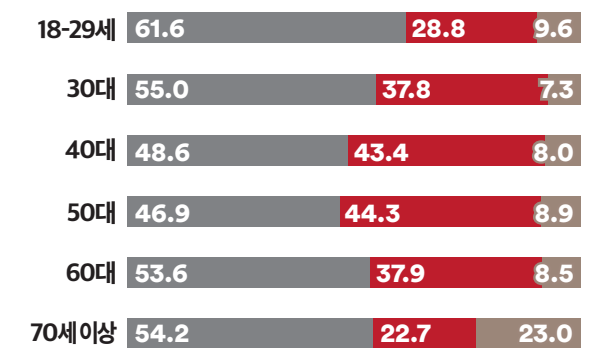


CATI 조사의 경우, '개인의 일탈'이란 응답이 우세(16.5%p)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ARS 조사에서는 '야당 대표에 대한 부정 인식만 강조한 정권'이란 응답이 소폭 앞섬(4.5%p) '지지정당이 없다'는 계층 및 중도층에서도 '개인의 일탈'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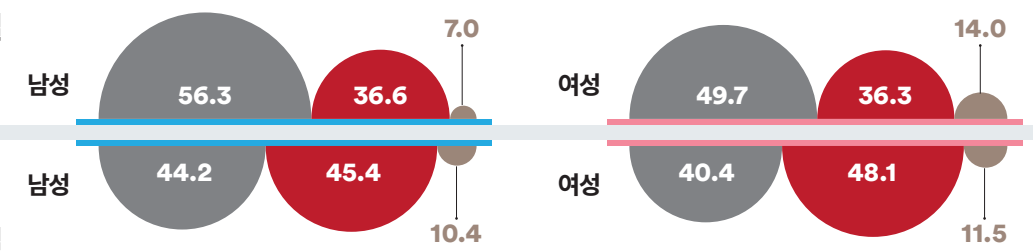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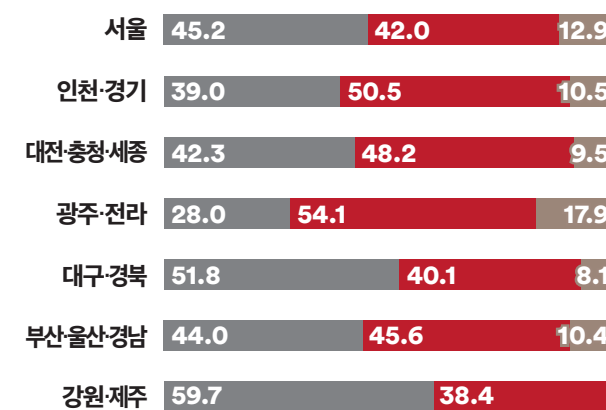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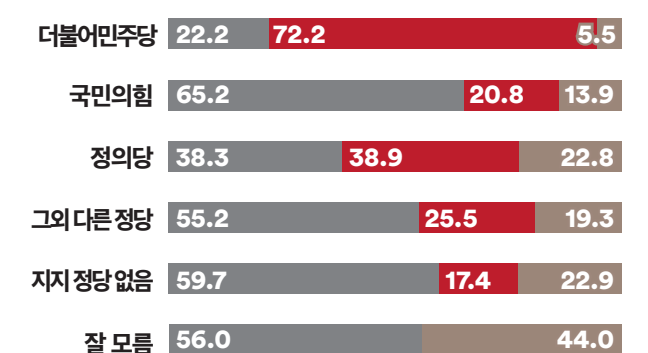
성별



권역



정당지지도



그릇된 정치신념을 가진 개인의 일탈 야당 대표에 대한 부정인식만 강조한 정권 모르겠다

WWW.
FLOWERRESEARCH.
COM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WR_202401_03



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